

### 1회용 비닐우산커버 퇴출... 빗물 제거기 사용하세요

서울시, 내달 지하철역 등서 없애 버려진 비닐 재활용 문제에 대처

서울시 공공청사와 지하철역에서 비닐 우산 커버가 퇴출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청 본청과 103곳의 시 산하 기관, 지하철 1~9호선 307개 역에서 비닐 우산 커버를 없앤다고 23일 밝혔다. 대신 우산 빗물 제거기나 빗물 흡수용 카펫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폐비닐 재활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서울시가 앞장서서 일회용 비닐 사용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했다. 비가 내린 23일 오전 시청 본청 정문 출입구에는 빗물 제거기 2대가 놓

여 있었다. 출근을 하는 직원들은 빗물 제거기에 우산을 넣고 안쪽 패드에서 불기를 털어냈다. 제거기 앞에는 "일회용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해 우산 비닐 커버는 비치하지 않습니다"는 안내판이 있었다. 시청 직원 박모(41)씨는 "평소에 버려진 비닐이 쌓여있는 걸 보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제거기로 불기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비닐 커버보다 사용하기 편하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8호선에서 사용한 우산 비닐 커버는 약 520만 장에 달했다. 서울시청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에서는 약 30만 장의 비닐 커버가 사용됐다. 쓰고 난 우산 비닐

커버는 물기에 젖어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땅에 묻거나 태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건물 입구에 비닐 커버가 설치돼 있으면 비가 조금 오더라도 의례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서 "건물 관리자와 시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일회용 비닐 줄이기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라 본청 출입구에 우산 빗물 제거기 총 10대를 설치했다. 또 가게 넓이가 33㎡를 넘는 사업장에서 비닐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행사장과 전통시장 등에서 비닐 사용 줄이기를



23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시청 본청 정문 출입구에 설치된 우산 빗물 제거기를 이용해 물기를 없애고 있다.

페인도 펼친다. 서울시는 "최근 폐비닐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비닐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백수진 기자**

### 서울 공공청사-지하철서 '우산비닐커버' 퇴출

재활용 안되고 소각때 환경오염 내달부터 우산빗물제거기 설치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일하는 직장인 윤모 씨(27·여)는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를 나오며 우산에 씌었던 비닐커버를 길가 휴지통에 버렸다. 지하철을 타고 오는 30분 남짓 쓴 비닐은 물기만 머금었을 뿐 깨끗했다. 휴지통은 우산비닐커버로 수북했다. 지하철역을 나선 지 10여 분 만에 회사를 들어서며 또다시 우산에 비닐커버를 씌었다. 선뜻 손이 가지 않았지만 애써 생각했다. '재활용하겠지...'

하지만 윤 씨가 버린 우산비닐커버는 재활용 되지 않는다. 물에 젖었기 때문이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 폐기물정책팀장은 "물기가 있는 비닐은 (재활용하려면) 밀려야 하는데 이때 비유가 들어가는 데다 악취가 나서 취급 업체에서도 잘 재활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비닐은 재활용 품목에 해당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이물질 제거가 어려울 정도로 오염된 비닐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려 배출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시와 산하

기관, 자치구 등에서 쓰는 우산비닐커버는 대부분 종량제봉투에 버려져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비닐을 소각하면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과 메탄을 비롯한 유해가스가 발생한다. 미세먼지 악화 요인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땅에 묻은 비닐은 썩는데 10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서울시청과 산하 기관에서 사용한 이 같은 비닐커버는 약 30만 장,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약 520만 장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가 오더라도 서울시 각 청사 및 지하철역에서는 비닐커버를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청과 모든 산하 기관, 지하철역에서 비닐커버 대신 우산빗물 제거기나 빗물 흡수용 카펫을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청 정문과 후문에는 우산빗물 제거기가 첫선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시 산하 기관 및 자치구를 전수조사해 보니 약 60%가 비닐커버를 사용하지만 이 중 80%는 더 이상 쓰지 않을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며 "각 자치구에도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운 기자 yeah@donga.com



"우산 빗물 여기서 제거하세요" 23일 서울시청 정문에 마련된 우산빗물제거기를 사용하는 시민. 서울시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청사나 지하철역 등에 우산비닐커버 대신 우산빗물 제거기나 빗물 흡수용 카펫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영한 기자 scoopyh@donga.com





비가 내린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청 직원들이 일회용 우산 비닐 씌우개 대신 친환경 우산 빗물 제거기를 사용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일회용 비닐 제품을 줄이기 위해 이날 구청 출입구 두 곳에 우산 빗물 제거기를 설치했다. 서대문구청 제공

## 서울 지하철역 '일회용 우산 비닐집' 사라진다

공공청사도 내달부터 사용금지  
'폐비닐 대란'에 선제적 대응  
대신 빗물 제거기·흡수 카펫 설치

비 오는 날 서울 시내 지하철 역사와 공공청사 출입구에 놓이는 일회용 비닐 우산집이 다음달부터 사라진다.

서울시는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지하철역과 공공청사에서 일회용 비닐 우산집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재활용 쓰레기 수거 업체가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면서 이른바 '폐비닐 대란'이 일어나는 등 비닐 과다 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시가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시는 일회용 비닐 우산집 대신 우산 빗물 제거기나 빗물 흡수용 카펫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시 본청에는 지난해 9월부터 출입구에 우산 빗물 제거기 10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빗물 제거기는 정면에서 봤을 때 알파벳 '유'(U) 자 모양으로 생겼으며, 좌우 양쪽 면에는 빗물을 흡수할 수 있는 천(매트)이 부착돼 있다. 가운데로 우산을 집어넣어 천에 빗물을 닦아내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집계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 시청과 산하 사업소, 25개 자치구 등에서 사용한 비닐 우산집은 30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비닐 우산집이 물기에 젖어 재활용되지 않고,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진다"며 "땅에 묻거나 태우는 과정을 거쳐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비닐 우산집은 지하철이나 공공청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간 기업 건물에서도 사용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 민간 건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강제할 순 없다"며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해선 건물 관리자와 시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민간에서도 비닐 사용을 줄여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 경향신문

2018년 04월 24일 화요일 016면 사회

## 서울시·산하기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지하철 우산 비닐커버도 없애

폐비닐 수거 거부로 인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계기로 서울시와 산하기관들이 종이컵, 페트병, 우산 비닐커버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고자 공공청사나 지하철역 등에 비치했던 우산 비닐커버를 다음달부터 두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우산 비닐커버가 있던 자리에는 우산 빗물 제거기(사진)나 빗물 흡수용 카펫 등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산하기관 및 자치구 등 76개 기관을 대상으로 우산 비닐커버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기관들이 최근 1년간 사용한 우산 비닐



커버는 약 30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물기가 남아있는 비닐커버는 재활용이 어려워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매립·소각 처리됐다"며 "일회용 비닐 제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 산하 전 기관에서 우산 비닐커버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시청 출입구에 우산 비닐커버 대신 우산 빗물

제거기 10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도 다음달부터 종이컵, 페트병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더해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복합 공간으로 지난해 9월 개관했다. 앞으로 새활용플라자 내 상점에서는 물품 판매 시 비닐 봉투를 제공하지 않는다.

카페에서는 머그컵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 텀블러를 지참한 방문객에게 음료 할인 또는 리필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컵을 소지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스테인리스 소재 컵을 대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